

교육실습 기간 중 예비특수교사의 반성적 저널쓰기가 반성적 사고 수준 변화에 미치는 효과 연구*

정 병 중**

가야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 요 약 》

이 연구는 연구 결과가 특수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교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토대를 제공하고자, 현장교육 실습기간 중 이루어진 예비특수교사들의 반성적 저널쓰기가 반성적 사고수준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양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현장실습이 이루어진 4주간, 경상남도 소재 K 대학교 특수교육전공 4학년 교육실습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비교 집단에 속한 15명에게는 첫 주와 마지막 주에 각각 3회의 저널쓰기를 그리고 실험 집단의 15명에게는 매주 3회의 저널쓰기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자료를 주 단위로 수집한 후 Galvez-Martin의 반성적 사고수준 분석 기준에 의해 세 명의 연구자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비교-실험 집단 모두 반성적 사고수준에 변화가 있었다. 둘째, 지속적으로 반성적 저널쓰기를 시행한 실험 집단은 반성적 사고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비교-실험 집단의 반성적 사고수준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리고 시간과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에 의해 변화함을 제시하였다. 논의와 제언에서는 반성적 사고수준 증진을 위한 반성적 저널쓰기의 효과와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조건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반성적 저널, 반성적 사고, 반성적 사고수준, 현장교육실습

* 이 연구는 2014년도 가야대학교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jbj4901@kaya.ac.kr)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Dewey에 의해 소개된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어온 반성적 사고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통해 의문점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그 사고를 이끌어 내는 근거와 원인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박은혜, 1996; 유승연, 2000; Hansen, 1998; Mewborn, 1999; 원미경, 강승희, 2007 재인용). 이는 곧 반성적 사고가 상황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갖기 위해 문제를 내적으로 점검해보고 탐색하는 사고의 과정임을 의미한다(Dewey, 1933; Cruickshank, 1986; 강영심, 박창언, 2010 재인용). 따라서 이와 같은 개념을 교사에게 적용시키면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이에 따른 활동적인 과정 속에서 경험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내적 과정으로, 교사들의 암묵적이고 실천적 지식 형성에 가장 중요한 교사 자신의 내적 점검(이세나, 2004)이라고 할 수 있다.

수업에 대한 반성적 사고는 교사가 자신의 신념이나 교수 실체를 변화시키고 이후의 수업을 계획, 실행, 평가하는 교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서혜성, 고민경, 2012). 즉 반성적 사고는 교사의 사고 과정을 정련되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이게 만들어 새로운 문제 상황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의 노력을 함으로써 전문인으로서의 성장을 돕는다(강영심, 2009; 정현숙, 2002).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자신의 교육 활동에 대한 방향감, 활동 중의 유능감, 결과에 대한 정당성과 평가에 대한 수용감을 갖고, 더 나은 교육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변화의 주체가 되는데 필요한 교사의 자질 중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강영심, 2009).

외국의 경우, 이와 같은 반성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빨리 이루어져 과거 10~15년 동안 교사 교육과정에서 교사들의 반성적 사고를 기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략(Ballantyne & Packer, 1995; Ben-Peretz, 1990; Korthagen, 2001; Riggs & Serafin, 1998)이 개발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교사 교육과정에서 교사들의 반성적 사고를 기르기 위한 강좌가 개설되는 등 교사들의 반성적 사고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어 왔다(원민경 외, 2007).

외국과 달리 국내는 비교적 최근해야 반성적 사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교사의 반성적 사고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강영심과 박창언(2010)에 의하면 국내에서도 반성적 사고가 교사들의 교수행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반성적 사고 자체를 길러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에서는 자기장학 또는 동료장학, 현장교육실습, 수업사례 연구, 실제 수업 상황과 유사한 상황의 모의수업, 수업을 녹화한 비디오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방법 등이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반성적 사고를 증진하고 반성적 사고의 수준과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저널쓰기를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반성적 저널쓰기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들은 것을 기술하면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느낌을 효율적인 수단으로 전환하여 자신의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는 방법으로(이영석, 이세나, 2005), 목표지향적이며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로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최승숙, 2012). Yinger와 Clark(1981)은 반성적 저널쓰기는 저자 자신에 대하여, 자신 알고 있는 것,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 자신이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하는 이유를 고려해 주기 때문에 반성적 사고를 기르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반성적 저널쓰기는 학습한 내용이나 실천적 행위에서 얻어진 지식을 여러 가지 다양한 맥락 속에서 연습해 보게 하고, 갈등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잠정적인 해결책을 찾아보게 하며, 지식을 구성하게 하고,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하도록 격려해준다. 뿐만 아니라 경험의 재구성을 통한 현장 경험의 이론적 분석 기회 제공(Walker, 1985), 실천행위의 반성을 통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극복 및 자율적인 의사결정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Connelly & Clandinin, 1990) 이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교사의 반성적 사고를 촉진시키는 다양한 방법들 중 가장 많이 소개되고 활용되고 있다(박은혜, 1996).

이와 같이 반성적 저널쓰기를 통한 반성적 사고수준의 변화는 향후 교육장면에 배치될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발생된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보고 대안을 고려하면서 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사전에 증진시켜 줌으로써 교육의 질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특수교육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반성적 사고, 반성적 저널쓰기 관련 연구는 국내의 전반적인 연구 경향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일반교육에서는 저널쓰기와 반성적 사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넘어 그 효과를 양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반면(권정숙, 2002; 서혜성 외, 2012; 원미경 외, 2007; 임경심, 2009; 조덕주, 광덕주, 진석연, 2008; 황성운, 박성혜, 2012), 특수교육 분야는 여전히 질적 연구를 주된 연구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제에 있어서도 특수교육은 여전히 저널쓰기를 통한 반성적 사고의 변화(강영심 외 2007; 강영심, 김지훈, 김정은, 2006; 강영심, 황순영, 2004; 김남진, 강병일, 2010)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최승숙(2012)에 의해 반성적 사고와 교사효능감과의 관계가 연구되었다. 반성적 사고수준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저널쓰기(강영심, 2009; 강영심 외, 2007; 김남진 외, 2010), (모의)수업(강영심 외, 2004; 박수옥, 전병운, 2004)에 대한 연구로 제한적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까지의 연구경향은 스스로의 교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지닌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이론과 실체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능력을 길러내기 위해 적절한 교과목이 실습과목(최승숙, 2012)임을 고려할 때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장교육실습 과정에서 예비특수교사들은 자신들이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을 교육현장에 실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재구성하며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반성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 분명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교육실습기간 중 실시된 예비특수교사들의 반성적 저널쓰기가 반성적 사고수준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양적으로 분석하여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장교육실습이 단순한 교육현장의 경험이 아닌 특수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교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토대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문제

현장교육실습기간 중 예비특수교사들의 반성적 저널쓰기가 반성적 사고수준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 간 예비특수교사의 반성적 저널쓰기를 통해 반성적 사고수준은 변화하는가?
- 둘째, 반성적 저널쓰기는 실험 집단 내 예비특수교사들의 반성적 사고수준 변화에 효과적인가?
- 셋째,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에게 실시된 반성적 저널쓰기는 집단별로 다른 효과를 유발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상남도의 G시에 소재한 K대학교 특수교육전공(초등특수교육 및 초·중등특수교육 복수전공) 4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2014년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구분은 성실도를 간접적으로나마 추측할 수 있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기준으로, 각 집단에 고루 분포되도록 배치하였고 성별과 연령, 지역, 교육실습 학교의 특성 등과 같은 다른 변인은 고려하지 않았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집 단	사례수	평균 학점(만점: 4.50)
실험집단	15(남: 5, 여: 10)	3.69
비교집단	15(남: 4, 여: 11)	3.65

2. 연구 도구

반성적 사고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서혜성 외, 2012; 석은조, 2006; 이세나, 이영석, 2005; 원미경 외, 2007)에서 자주 이용된 Galvez-Martin 등(1998)이 개발한 반성적 사고수준을 권정숙(2002)이 번안하여 사용한 반성적 사고수준 분석 기준을 사용하였다.

Galvez-Martin 등(1998)은 교사들이 실제 교실환경에서 반성적 사고를 하는데 초점을 두고 하나의 관점에서 복합적 관점으로 바뀌는 것을 반성적 사고수준의 발달로 보고 반성적 사고수준을 0수준에서 7수준까지 구분하였다. 0수준에서 2수준은 낮은 반성적 사고수준으로, 3수준에서 5수준은 중간 정도의 반성적 수준으로, 그리고 6수준에서 7수준의 반성적 수준은 높은 반성적 사고수준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해당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1$ 이다.

<표 2> 반성적 사고수준 분석 기준

범위	반성적 사고의 수준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학적 개념이나 기술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음. • 단지 자신과 느낌에 근거해서 언급
1	교수행위/수행이나 그 뒤에 숨겨진 이론에 근거하여 결과를 예견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개인적인 경험으로 교수적/비교수적 사건을 일반적으로 설명 예) 이야기 나누기 자료로 그림 자료를 보여 주었는데 크기도 작고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지루해 했다.

<표 2> 반성적 사고수준 분석 기준 (계속)

범위	반성적 사고의 수준
2	교수행위/수행이나 그 뒤에 숨겨진 이론에 근거하여 결과를 예견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기술적인 방식으로 교수적/비교수적 사건을 평범하게 묘사 예) 노래를 듣고 신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주었지만 가끔씩은 교사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져 버릴 때가 있었다.
3	교사 행동의 일면에만 초점을 두고 관련에 도달
4	학생들과 학습 결과에 미친 영향과 학생의 행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학생들의 관점-한 가지로 교수 행위를 평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적/비교수적 시간에 교사의 관점으로 교수 행위를 상세히 분석하기 • 효율적인 교수와 비효율적인 교수를 구별 • 교사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어떻게 다루고 유사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분석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활동이 목표와 학생들의 특성에 근거한 것이고 다양한 교수전략은 학생들의 학습 스타일에 맞추어 사용된다는 것을 인식 • 학생들의 발달과 교수행위와 교수, 학생들의 특성과 가르치는 스타일과 관련된 과제를 분석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적 관점으로 교수적/비교수적 사건을 평가 • 학습의 특수한 상황과 맥락의 영향을 인식 • ‘만일’ - ‘그때’ - ‘왜냐하면’ 을 활용하여 향상과 더 나가 수행을 위해 제안/제시

출처: 석은조(2006 : 57). 저널쓰기가 예비유아교사의 반성적 사고 자치조절 학습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예비특수교사들의 반성적 저널쓰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장교육 실습 기간 전 반성적 사고에 대한 개념 및 내용, 반성적 저널쓰기에 대한 내용 및 요구되는 사항 등에 대한 특강 및 저널쓰기 연습을 1회 3시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실험 집단의 학생들은 현장교육실습이 이루어지는 첫 날부터 4주간의 실습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날까지 하루 일과가 끝난 후 반성적 저널을 매주 3회 작성 후 일주일 단위로 연구자에게 메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반면 비교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에게는 실습 첫 주 3회와 마지막 주 3회만 저널을 작성, 메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학생들이 보내온 메일을 다시 각 주별로 연구 협력자들에게 전송하였다. 본 연구에 평정자로 참여했던 연구 협력자들은 대학교에서 특수교육전공 교수로 반성적 저널 및 교육실습에 많은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는 2인으로 구성되었다. 현장교육실습 기간 중 작성된 저널을 분석하기에 앞서 평정자들은 실습전 학생들의 연습으로 작성한 저널을 참고로 반성적 사고 수준 측정 방법을 경험하였으며 평정자간 신뢰도는 .89~.93, 평정자 내 신뢰도는 .95였다. 이후 일주일마다 이루어진 공식적인 모임(4회)을 통해 각 주차별 저널에서 학생들의 반성 내용에 대해 토론한 결과 A4지 기준 총 270장의 저널에 대한 내용 분석이 마무리되었다.

4. 자료 처리

이상의 과정을 거친 분석 내용은 연구 문제에 맞춰 다시 양적으로 분석되었는데, SPSS 12.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 비교 집단은 1주차 저널에서 사전 점수를, 마지막 주차 저널에서 사후 점수를 산출하였다. 각 주차별로 작성된 반성적 저널은 학생당 3편씩이므로 이들의 평균을 해당 학생의 반성적 사고수준으로 하였다. 실험 집단 역시 비교 집단과 마찬가지로 1주차 3편의 저널에서 평균을 계산 후 이를 사전 점수로, 4주차 저널 3편의 평균을 사후 점수로 하였으며 집단 간 유의도 검증을 위해 대응표본 t -검증(paired t -test)과 독립표본 t -검증(independent t -test)을 각각 사용하였다.

둘째, 개체 내 변인인 시간별 반성적 사고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구형성 가정(sphericity assumption)을 확인 후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 measured 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반성적 저널쓰기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집단(실험-비교 집단)과 시간(1주차-4주차)을 변인으로 하는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집단간 반성적 사고수준 비교

반성적 저널쓰기가 예비특수교사들의 반성적 사고수준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사전 반성적 사고수준 점수와 사후 반성적 사고수준 점수를 평균을 통해 비교하였으며, 결과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집단간 반성적 사고수준의 변화

집 단	N (단위: 명)	사전		사후		t
		M	SD	M	SD	
비교집단	15	1.20	0.61	2.22	0.54	6.108***
실험집단	15	1.22	0.43	3.71	0.92	8.963***
t		-.115		-5.374***		

사전 검사 결과 현장교육실습 첫 주와 마지막 주에 각 3회씩만 저널을 작성하도록 한 비교 집단(M=1.20)의 반성적 사고수준은 낮은 수준으로 분류되는 1수준과 2수준이 대부분이었다. 현장교육실습 기간 동안 저널을 꾸준히 작성하도록 한 실험 집단(M=1.22) 역시 비교 집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복측정을 통한 대응표본 t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차는 각각 1.02점, 2.49점이었으며, 이와 같은 평균의 차이는 모든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사전 점수에 있어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의 특성이 동일함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후 평균 점수의 차이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다음은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에 속해 있는 예비특수교사들이 1회차때 작성한 반성적 저널의 예를 각각 제시한 것으로 반성적 사고수준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오늘 아침에는 담당 학급에 가서 학생들 실내화 신는 것 지도하고 겹옷 벗어서 가는 것도 지도했다. 그 다음에는 건강 체조를 하고 실습생 대기실로 왔다. 1교시에는 실습담당 선생님께서 실습안내 및 학교현황 안내를 해주셨고, 2교시에는 교장선생님께서 특수교육의 이해에 대한 특강을 해주셨다. (중략) 5교시에는 실습생 대기실에서 교재교구 연구 및 학습자료 제작 시간인데 담당선생님께서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셔서 일지를 좀 더 보충하는 시간을 가졌다.

(비교 집단, 변○○-사전-0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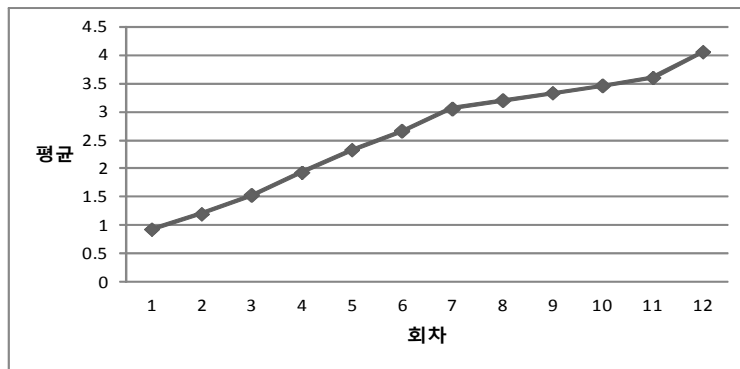
• 실습 첫날 너무 긴장을 하고 가서 그런지 정신없이 보낸 것 같다. 1교시 교장선생님께서 연수하실 때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교사생활을 하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시면서 학생들에게 스스로 하는 행동하는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강조하셨다. (중략) 오후가 되어서야 학생들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4교시 마치고 치료실 가는 학생들이 있어서 모두를 다 보진 못하였다. (실험 집단, 임○○-사전-0수준)

2. 실험 집단내 반성적 사고수준의 변화

현장교육실습 기간 중 반성적 저널쓰기를 지속적으로 시행한 예비특수교사들의 반성적 사고수준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의 <표 4>와 같으며, 평균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았다.

<표 4> 각 주차별 반성적 사고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 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M)	.93	1.20	1.53	1.93	2.33	2.66	3.06	3.20	3.33	3.46	3.60	4.06
전체 평균(M)	1.22			2.31			3.20			3.71		



<그림 1> 각 회차별 반성적 사고수준의 평균변화

반성적 저널쓰기에 대한 경험이 누적될수록 평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마지막 주차에는 처음 주차와 비교해서 평균이 2단계 이상 상승한 3.71 점을 기록했다. 이는 반성적 사고수준의 기준(<표 4> 참조)에 준해 볼 때 ‘교수행위/수행이나 그 뒤에 숨겨진 이론에 근거하여 결과를 예견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개인적인 경험으로 교수적/비교수적 사건을 일반적으로 설명’ (1수준)하는 수준에서 ‘학생들과 학습 결과에 미친 영향과 학생의 행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학생들의 관점-한 가지로 교수 행위를 평가’ (4수준)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음을 의미한다. 각 회차별 반성적 사고수준의 변화는 더욱 뚜렷함을 알 수 있었는데, 1회차시 0.93수준으로 1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했던 것이 마지막 12회차에서는 4.06수준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312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5권 3호)

살펴본 바와 같이 반성적 저널쓰기를 통한 반성적 사고수준의 전체적인 변화 양상을 토대로 반성적 사고수준에 대한 반성적 저널쓰기의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5>과 같이 반성적 사고수준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표 5> 실험 집단의 반성적 사고수준 변화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소스		SS	df	MS	F	p
시간	구형성 가정	53.637	3	17.879	52.485	.000
	Greenhouse-Geisser	53.637	1.546	34.689	52.485	.000
	Huynh-Feldt	53.637	1.702	31.519	52.485	.000
	하한값	53.637	1.000	53.637	52.485	.000
오차 (주차)	구형성 가정	14.307	42	0.341		
	Greenhouse-Geisser	14.307	21.647	0.661		
	Huynh-Feldt	14.307	23.824	0.601		
	하한값	14.307	14.000	1.022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반성적 저널쓰기를 적용한 실험 집단의 예비특수교사들의 경우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반성적 사고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52.485, p<.001$). 즉 기간에 따라 반성적 사고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의미하였다.

이와 같은 평균의 변화에 대한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사후분석 결과에 의하면 3주차와 4주차간의 평균차를 제외한 각 주차간 평균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01$)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주차와 1주차간의 평균차가 1.089로 가장 컸으며, 3주차와 2주차간의 차이는 .889, 4주차와 3주차간 평균의 차이는 .511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평균의 차이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6>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사후분석 결과

(I) 시간	(J) 시간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1	2	-1.089	.124	.000
	3	-1.978	.119	.000
	4	-2.489	.278	.000
2	3	-.889	.116	.000
	4	-1.400	.273	.000
3	4	-.511	.280	.089

다음에 소개되는 사례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반성적 사고수준이 증가한 실험 집단 소속 예비특수교사들이 작성한 반성적 저널 중 일부이다.

- 오늘 실습 첫 날이라 많이 긴장되고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하루가 지나가니 '조금 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말도 많이 나누어 볼걸...!' 하는 후회도 생기는 것 같다. 오늘 한 학생이 등교하지 않아 반 학생들을 다 만나지는 못했다는 점이 조금 아쉽지만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 좀 더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실습에 임해야겠다.

(실험 집단, 신○○-1회차-0수준)

- 처음으로 참관수업에서 직접 수업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떨리기 보다는 긴장을 많이 했는데 생각한 반응들이 잘 나오지 않아서 당황한 순간들이 많았다. 앞으로 수업할 때에는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준비해서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실험 집단, 신○○-5회차-3수준)

- 담임선생님과 다른 교생선생님의 연구수업 협의로 아무도 없이 혼자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역할을 정해서 병원놀이를 하여서 아이들이 즐거워했지만, 활동적인 부분에서 아이들을 통제하며 수업하는 부분이 부족했던 시간이었다. 체육 연구수업 참관은 넓은 강당에서도 아이들의 주의집중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고 활동1에서 개념을 습득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였다. 활동 3에서는 경기를 통해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여 배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업이었다. (실험 집단, 박○○-10회차-5수준)

- 오늘은 공개수업 참관이 많은 날이었다. 1교시 *** 선생님, 3교시 ○○○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5교시 △△△ 선생님까지 3명의 선생님이 공개수업 하셨다. 1교시 *** 선생님 반은 자폐장애학생만 4명이고 앉아서 수업하기 보다는 신체활동을 다양하게 하는 수업이 맞는데 적합하게 잘 구성하셨다. 3교시 ○○○ 선생님은 중등부 사회선생님이신데 역사 수업을 하셨는데 너무 잘하셨다. 초등은 교구를 많이 사용하지만 중등은 그렇지 않아서 더 일반 수업 같은 분위기였다. 5교시 △△△ 선생님 수업은 학생들이 흥미 있고 교육과정에도 맞는 여름철 과일과 채소 결과 속 알기였는데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학생이 좋아하는 과일과 채소를 미리 사전에 숙지하셔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한 것이 좋았다.

(실험 집단, 김○○-12회차-6수준)

- 3교시에 정□□ 선생님 수업에는 동화 속에 학생들이 들어가 이야기가 흘러가도록 수업을 하여서 학생들이 더욱더 집중을 하면서 참여를 하는 것 같았다. 자석의 성질을 이용하여 밀어내는 활동 잡아당기는 활동을 하였고, 자석의 성질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서 학생들이 자석의 성질 개념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너무 활동들이 놀이 위주로 흘러가서 그 점이 아쉬웠다. 조금 개념적으로 노래 말고 말로 설명을 해주었다면 더 좋을 것 같았다.

(실험 집단, 전○○-12회차-7수준)

3. 반성적 저널쓰기의 효과

<표 1>과 <표 3>에 의하면 비교 집단 그리고 실험 집단 모두 반성적 저널을 처음으로 작성할 때와 마지막으로 작성할 때, 반성적 사고수준은 긍정적으로 향상되었다. 특히 두 집단 모두 첫 주와 마지막 주의 반성적 사고수준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실험 집단 내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평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간, 집단에 따른 반성적 저널쓰기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표 7>는 해당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7> 반성적 사고수준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소스		SS	df	MS	F	p
시간	구형성 가정	46.230	1	46.230	117.281	0.000
	Greenhouse-Geisser	46.230	1.000	46.230	117.281	0.000
	Huynh-Feldt	46.230	1.000	46.230	117.281	0.000
	하한값	46.230	1.000	46.230	117.281	0.000
시간×집단	구형성 가정	8.067	1	8.067	20.464	0.000
	Greenhouse-Geisser	8.067	1.000	8.067	20.464	0.000
	Huynh-Feldt	8.067	1.000	8.067	20.464	0.000
	하한값	8.067	1.000	8.067	20.464	0.000
오차(주차)	구형성 가정	11.037	28	0.394		
	Greenhouse-Geisser	11.037	28.000	0.394		
	Huynh-Feldt	11.037	28.000	0.394		
	하한값	11.037	28.000	0.394		

<표 7>에 의하면 개체 내 변인에 해당하는 시간에 따라 반성적 사고수준에 유의미한 차이($p < .001$)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집단 간 상호작용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 < .001$). 이와 같은 결과는 시간과 집단 간 상호작용이 있으며, 시간과 집단에 따라 반성적 사고수준의 차이가 발생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집단에 속하든 반성적 저널쓰기를 시행하는 것은 반성적 사고수준의 변화를 가져오며, 반성적 저널을 꾸준히 작성할수록 반성적 사고수준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내포한다.

IV. 논의 및 제언

1. 논의

이 연구는 반성적 저널쓰기가 예비교사들의 반성적 사고수준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교육현장실습 대상자인 대학교 4학년을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작성한 반성적 저널을 반성적 사고수준 분석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 연구 결과의 내용을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고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분석하고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은 모두 반성적 저널쓰기를 통해 반성적 사고수준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보다 증가하였다. 즉 반성적 저널쓰기는 집단의 구분없이 반성적 사고수준을 변화시킨다.

반성적 사고수준은 저널쓰기를 통한 반성적 사고경험의 제공을 통해 충분히 향상될 수 있는 교육 가능한 사고이며, 반성적 사고 경험에 의해 반성적 사고수준이 증가하였다는 선행연구 결과(강영심, 2009; 강영심 외, 2006, 2010; 권정숙, 2002; 서혜성 외, 2012; 석은조, 2006; 안효진; 원미경 외, 2007; 조덕주, 2008)와 일치한다.

둘째, 실험 집단 내 예비특수교사들의 반성적 사고수준은 현장교육실습 기간 중 반성적 저널쓰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반성적 저널쓰기는 예비특수교사들의 반성적 사고수준 향상에 효과적이다.

반성적 사고의 형태를 구분한 Killion과 Todnem(1991)에 의하면, 반성적 사고는 실천 행위에 대한 반성적 사고(reflection-on practice), 실천 행위 중의 반성적 사고(reflection-in practice), 실천 행위를 위한 반성적 사고(reflection-for practice)로 구분되어 진다. 실천 행위 중의 반성적 사고란 교사가 어떤 실천적 행위를 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것을 지칭한다. 그리고 실천 행위에 대한 반성적 사고란 이미 종료된 특정 상황 이후에 그에 대하여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경우를 이른다. 앞서 언급된 두 가지의 반성적 사고는 어떤 상황과 관련된 반응인데 반해, 실천 행위를 위한 반성적 사고는 두 가지의 반성적 사고의 결과가 바람직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세 가지 유형의 반성적 사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4주간 이루어지는 현장교육실습 기간이다. 예비특수교사들은 현장교육실습 기간 중 교실에서 벌어졌던 상황(실천 행위 중의 반성적 사고)을 토대로 대학에 돌아와 서로 토론하고(실천 행위에 대한 반성적 사고), 토론의 내용을 다시 현장에 나가 적용해 보는 것(실천 행위를 위한 반성적 사고)이 반성적 사고 향상을 위해 교사교육에 이상적이겠지만(조덕주

외, 2008), 우리나라의 교사교육 현장을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현장교육실습 기간 중의 반성적 저널쓰기는 예비교사로 하여금 이미 습득한 이론을 근거로 자신의 경험을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재구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며(강영심 외, 2010), 그 반성의 내용을 바로 그 다음 날 자신의 실습 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조덕주 외, 2008). 뿐만 아니라 신규 특수교사의 교수 내용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 변화 정도에 관한 이유리와 곽승철(2014)의 연구에 의하면, 반성적 저널쓰기는 특수교사의 수업 내용 지식, 수업 방법 지식, 장애 학생의 정서 변화에 대한 구체적 이해, 학습 환경, 수업을 바라보는 가치관에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성적 저널쓰기는 반성적 사고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반성적 저널쓰기를 통한 집단(실험-비교 집단)과 시간(사전-사후)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집단 내 변인에 해당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효과 차이가 발생하며, 시간과 집단 간 상호작용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는 곧 간헐적으로 반성적 저널쓰기를 시행하는 것 역시 반성적 사고수준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에 해당하지만, 지속적으로 반성적 저널쓰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효과가 더욱 명확해짐을 의미한다.

반성적 저널쓰기를 지속적으로 시행한 실험 집단의 반성적 사고수준의 유의미한 변화는 차치하더라도 실습 초기 3회 그리고 실습 후기 3회로 총 6회의 반성적 저널만을 작성한 비교 집단의 반성적 사고수준 변화 역시 유의미한 차이가 있게 나타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설명 가능하다.

우선 Grennan(1989)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저널쓰기를 통해 예비교사의 반성적 사고능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실험 집단이 4주차에 보여준 반성적 사고수준은 비교 집단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비교 집단의 반성적 사고수준 변화는 예비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저널쓰기를 활용하여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분석한 강영심과 박창언(2010)의 연구를 통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즉 선행연구에 의하면 예비특수교사의 반성적 사고는 전공 수업을 듣고 난 뒤 개인적으로 저널을 쓰는 것만으로도 그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저널을 쓰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심층적인 저널쓰기가 가능해졌는데 그들의 초기 저널은 수업의 내용을 단순히 요약하거나 새로운 지식 습득에 대한 느낌이나 수업 후의 달라진 모습 등을 기술하는 수준에서 점차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변화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연구 결과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반성적 저널쓰기를 지속적으로 쓰는 경우 반성적 사고를 비판적으로 할 수 있는 7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변화를 유도할 수는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예비특수들의 저널쓰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들의 반성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조덕주 외, 2008). 실습 기간 중에 행해지는 예비특수교사의 저널쓰기가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장교육실습 지도교수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즉 피드백이 필요하다. 저널에 대한 지도교수의 피드백은 예비특수교사가 현재 나타내는 반성의 수준을 파악하여 이들이 그 다음 수준으로 나아가도록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 모두에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처치가 실험 집단에 속한 예비특수교사들의 반성적 사고수준을 크게 증진시키지 못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두 번째 연구 결과에서 시간이 지속됨에 따라 반성적 사고수준의 증가폭이 점차 감소하는 것 역시 여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장교육실습 기간 중 예비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반성적 저널쓰기를 통한 반성적 사고수준의 향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실습생들과 지도교수가 함께 실습상황에 대해 꾸준히 고민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경우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저널쓰기를 실시한 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널쓰기의 실질적인 효과 산출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4주간의 현장교육실습 기간 중에 실시한 저널쓰기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므로 저널쓰기의 실질적인 효과라고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 표현 수단을 글쓰기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반성하고 계획한 내용을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글쓰기 실력도 요구되는 만큼, 저널을 통해 표현된 예비특수교사의 반성적 사고수준과 실질적인 반성적 사고수준을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끝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앞서 지적한 연구기간의 연장, 지도교수의 지속적이고 적절한 피드백, 예비특수교사들의 쓰기 수준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심 (2009). 저널쓰기를 통한 예비특수교사의 반성적 사고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지적장애 연구**, 11(4), 283-304.
- 강영심, 박창언 (2010). 예비특수교사의 반성적 사고 증진을 위한 저널쓰기 활용 방안. **학습장애 연구**, 7(3), 63-80.
- 강영심, 황순영 (2004). 모의수업을 통한 예비특수교사의 반성적 사고 유형과 수준 분석. **아시아 교육연구**, 5(4), 55-80.
- 강영심, 김지훈, 김정은 (2006). 수업과정에서 경험한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예비특수교사의 반성적 사고 변화과정. **아시아교육연구**, 7(2), 23-44.
- 강영심, 박재국, 안성우, 김자경, 김남진 (2007). 현장교육실습이 예비특수교사의 반성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특수아동교육연구**, 9(4), 1-22.
- 권정숙 (2002). 유아교사의 반성적 사고 및 반성적 사고수준과 교수능력. 박사학위 논문, 서울 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남진, 강병일 (2010). 현장교육실습 기간 중 특수교육전공 교육실습생들의 주된 경험에 관한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2(4), 215-235.
- 박수옥, 전병운 (2004). 수업에 대한 반성적 사고가 유아특수교사의 발문과 피드백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4(1), 135-157.
- 서혜성, 고민경 (2012). 보육교사의 반성적 저널쓰기에 나타난 반성적 사고 수준의 변화: 활동을 중심으로.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6(2), 245-268.
- 석은조 (2006). 저널쓰기가 예비유아교사의 반성적 자기조절학습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원미경, 강승희 (2007). 예비유아교사의 반성적 사고력 향상에 대한 저널쓰기의 효과. **해양수산 교육연구**, 16(3), 429-440.
- 안효진 (2006). 반성적 사고를 통해 나타난 예비유아교사의 신념과 실천: 프로젝트 접근법을 통해. **대한가정학회지**, 44(6), 15-22.
- 이세나 (2004). 유치원 교사의 반성적 사고 경험이 반성적 사고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이세나, 이영석 (2005). 유치원 교사의 반성적 사고 경험이 반성적 사고수준과 반성적 사고과정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2), 247-274.
- 이영석, 이세나 (2004). 유아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소고: 반성적 사고를 중심으로. **미래 유아교육학회지**, 11(4), 229-254.
- 이유리, 광승철 (2014). 반성적 사고를 통한 특수교사의 교수내용지식(PCK) 변화 탐색. **특수아동 교육연구**, 16(1), 127-156.
- 임경심 (2009). 유치원 교육실습에서 반성적 저널쓰기가 예비교사의 교육신념 및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조덕주, 광덕주, 진석연 (2008). 예비 교사의 반성적 사고 수준 향상을 위한 실제적 맥락 안에서의 저널쓰기 연구. **교육학연구**, 46(1), 231-259.

- 최승숙 (2012). 반성적 저널쓰기를 활용한 특수학급 현장실습이 예비특수교사의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 11(1), 107-130.
- 황성온, 박성혜 (2012). 반성적 저널쓰기 활동이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6(3), 117-142.
- 황순영 (2007). 참관실습 전, 후 예비특수교사로서의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중복·지체 부자유아교육**, 50(1), 163-179.
- Connelly, F. M., & Clandinin, D. F. (1990). Stories of experience and narrative inquiry. *Educational Researcher*, 19(4), 2-14.
- Galvez-Martin, M., Bowman, C., & Morrison, M. (1998). An exploratory study the level of reflection attained by pre-service teachers. *Mid-Western Educational Researcher*, 11(2), 9-18.
- Grennan, K. F. (1989). The Journal in the classroom. *Equity and Excellence*, 24(3), 38-40.
- Killion, J., & Todnem, G. (1991). A process for personal theory building. *Educational Leadership*, 48(6), 14-16.
- Stover, L. (1986). Writing to learn in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7(4), 20-23.
- Yinger, R., & Clark, C. (1981). Reflective journal writing: Theory and practice. East Lansing, MI: Institute for Research on Teaching. *Occasional Paper no. 50*.
- Walker, D. (1985). Writing and reflection. In Boud, D., Keogan, R., & Walker, D. (Eds), *Reflection: Turning Experience into learning*. New York: Kogan & Page Publishers.

The Effects of Reflective Journal Writing on Reflective Thinking Level of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

Jeong, Byeong-Jong

Kaya University Dept. of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plore change of reflective thinking level appearing in reflective journal writing of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The subjects were 30 seniors(experiment group 15, control group 15) in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K University in Gyeongsangnamdo and they were trained reflective journal writing. Students in control group wrote the reflective journal for 2 weeks(1st week, 4th week) and students in experiment group rewrote the reflective journal for 4weeks. Reflective journals materials were analyzed by Galvez-Martin's reflective thinking level.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reflective journal writing revealed positive effect on reflective thinking improvement of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Secondly, in the result from change of reflective thinking level appearing in experiment group's reflective journal writing. It was shown that there was improvement of up to level 2(average) at the beginning stage. Third, the change of reflective thinking level was affected by time and group.

Finally, this study suggest the necessity of guide, feedback for professor, experimental period, study of consideration of student's writing skill.

Key Words : reflective thinking, reflective thinking, reflective journal

논문 접수: 2014. 07. 30 심사 시작: 2014. 08. 13 게재 확정: 2014. 09. 22